

유리베 '대박'



LA다저스 3루수 후안 유리베가 NL 디비전시리즈 4차전에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4-3으로 꺾고 내셔널리그 챔피언십(7전4승제) 진출을 확정 지은 뒤 경총 뛰며 환호하고 있다. 유리베는 2-3으로 끌려가던 8회 무사 2루에서 역전 좌월 투런포를 날렸다. 다저스는 세인트루이스-피츠버그전 승자와 12일부터 월드시리즈 진출권을 놓고 격돌한다. /연합뉴스

8회 역전 투런 ... LA 다저스, NL 챔피언십 시리즈 선착

DS 애틀랜타에 3승1패 류현진 '삼페인 두번 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류현진(26)의 절친한 벗 후안 유리베의 짜릿한 역전 결승 투런 홈런에 힘입어 미국 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 4승제)에 선착했다.

다저스는 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NL 디비전시리즈(5전 3승제) 4차전에서 2-3으로 끌려가던 8회 무사 2루에서 터진 유리베의 좌월 투런포를 앞세워 동부지구 1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4-3으로 제압했다.

전날 다저스 구단 역사상 포스트시즌 한 경기 최다 득점 타이 기록(13점)을 57년 만에 재연하고 2승 1패로 앞서간 다저스는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디비전시리즈를 마치고 4년 만에 NLCS에 진출했다.

다저스는 올해 포스트시즌에 오른 팀 중 가장 먼저 CS 진출을 확정하고, 1988년 이후 25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향해 한 차게 진군했다.

1차전 승리 투수인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를 나흘 만에 투입하는 '조강수'를 쓰고도 역전패 일보 직전에 몰린 다저스는 유리베의 천금같은 홈런으로 홈에서 승부를 매조지고 NLCS를 차분하게 준비하게 됐다.

다저스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승자와 12일부터 월드시리즈 진출권을 놓고 격돌한다.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당초 선발로 예정한 우완 리키 놀라스코 대신 1차전 선발승을 올린 커쇼를 투입했다.

그는 "100% 컨디션을 되찾은 커쇼가 자원 등판을 요청함에 따라 구단 수뇌부 회의를 거쳐 선발투수를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커쇼는 6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속아내며 3안타 2실점(비자책점)으로 호투하고 기대에 부응했다. 예상치 못한 수비실책 탓에 승패 없이 물러났으나 커쇼는 디비전시리즈 평균자책점을 0.69로 떨어뜨리고 기동투수다운 성적을 남겼다.

다저스는 시리즈 내내 매 경기 결정적인 홈런을 터뜨리고 한 방 능력을 뽐냈다.

1차전에서 애드리안 곤살레스(2점), 2차전에서 헨리 라미레스(2점), 3차전에서 칼 크로퍼드(3점)·유리베(2점)가 포물선을 그렸다.

4차전에서도 크로퍼드가 솔로포 2방, 유리베가 투런포 1방을 가동하며 홈런으로만



류현진 "기본 최고" 류현진이 라커룸에서 동료들에게 삼페인을 터뜨리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진출을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점수를 뽐냈다.

동료들의 삼페인 세례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류현진은 "좋은 팀에 들어와 이런 영광을 누린다. 우리 팀이 이길 줄 알았다"며 "이제 두번 더 삼페인 뿌릴 것"이라고 말했다. 리그 챔피언십 우승과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다 차지하겠다는 다짐이었다.

한편 아메리칸리그(AL) 디비전시리즈에서 2승1패를 기록한 보스턴은 탬파베이와 9

일 오전 9시35분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4차전을 펼친다. 오클랜드(2승1패)와 디트로이트 경기도 같은 날 오전 6시 코메리카 파크에서 열린다.

내셔널리그(NL) 디비전시리즈에서 2승2패로 광광하게 맞서고 있는 세인트루이스와 피츠버그는 10일 오전 6시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5차전 승부를 가린다. /연합뉴스

KIA의 몰락 ... 2013 프로야구 결산

③ 몸값 못한 선수들

투수 몰락 타격 쇠락 용병 추락

조라한 성적표 조라한 가을이다.

'호랑이 군단'은 V10의 역사와 함께 수많은 영광의 얼굴을 만들어내며 가을 주인공이 되곤 했다. 올 시즌은 대흥작으로 유난히 쓸쓸한 가을을 보내게 됐다.

▶투수왕국의 몰락

안방에서 열렸던 KIA의 마지막 3연전에는 10승 투수 배출이라는 목표가 걸려있었다.

소사의 10승 도전은 김진우의 불륜 세이브에 물거품이 됐고, 양현종의 10승은 야수진의 실수와 반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투수 왕국'으로 군림했던 KIA의 2013시즌은 3명의 9승 투수로 끝났다.

마무리 엔서니의 구상이 틀어지면서 가속화된 마운드 붕괴, 팀을 상징할 투수가 없었다. 양현종의 거침없는 기세는 두 차례 찾아온 옆구리 부상에 꺾였고 김진우는 후반기 침착하지 못한 승부로 스스로 무너졌다.

에이스 윤석민도 부상을 이겨내지 못했다. 부상여파로 전반기를 흘러보낸 윤석민은 마무리로 변신한 후반기에는 신통치 않은 팀 성적에 반 휴업 상태로 보냈다. 4일 최종전에서는 1이닝 3실점으로 고개를 숙였다.

'용병 농사'도 흥작이었다. 2009년 우승의 주역 로페즈를 비롯해 리오스·그레이싱어 등 광광한 선수를 배출했던 KIA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국인 투수는 마운드의 큰 동력이 되지 못했다. 선동열 감독이 '좌완'을 강조하면서 중도에 영입한 빌로우도 3승에 그치면서 올 시즌 소사·엔서니·빌로우 3명의 외국인 선수가 만든 성적은 12승20세이브다.

셋발도 없었다. 지난해 필승조를 꿰찼던 박지훈이 올 시즌에는 배짱투를 보여주지 못하며 1·2군을 오갔다. 임준섭이 임시 선발로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컨트롤 난조로 명함을 내밀 정도의 활약을 하지 못했다. 박경태는 막바지 선발 가능성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전반기 불펜에서의 부진이 아쉽다.

▶콜러코스터 타선

화끈한 타력은 마운드의 약점을 가리며 초반 질주를 이끌었다. 그러나 타격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면서 팀의 추락이 가속화 됐다.

매일 같이 타순을 옮기며 경기를 치른 야수들은 부상 도미노와 함께 슬럼프에 빠졌다. 1번부터 9번까지 쉬어갈 곳 없는 타순이 구축되면서 여유롭게 경기를 풀어가던 모습은 이내 성급한 승부로 바뀌었다.

FA대어 김주찬이 부상으로 47경기 출전에 그쳤고 제 2의 전성기를 예고했던 최희섭이 체력관리에 실패하며 다시 중도에 자리를 비웠다. 김원섭도 경기 도중 발을 잘못 딛으면서 부상병이 됐고 김선빈도 부상으로 3할 도전에 실패했다.

'얇은 선수층' 탓에 야수진의 내부 경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타선. 부상의 공백은 더 크게 보였고, 부상 공백은 남은 주전들의 과부화로 이어지면서 부상이 돌고 돌았다.

이범호와 나지완이 고군분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범호는 팀 최다 홈런을 만들기는 했지만 기회마다 병살타를 때리며 '극과극'을 달렸다. 잘 때리던 나지완은 시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며 100타점 앞에서 주저앉았다. 허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안치홍도 초반 부진에서 헤어지지 못하면서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

내년 시즌에 초점을 맞추면서 험겨워진 후반기, 선수들은 자신감 없는 승부ろ 팬들을 실망시켰다. 집중력 난조 속에 후반기 수비 실수가 속출했고 상대 수비진을 긴장시킬 센스있는 주루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이쉬움 속에 발견한 희망과 속세

마운드에서는 이렇다할 MVP를 꼽을 선수가 없지만 타석에서는 신종걸과 나지완이 자신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매년 기회에서 실망으로 끝났던 신종걸이지만 올 시즌에는 뜨거운 질주로 팬들을 환호시켰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한 공백에도 불구하고 3할 고지를 밟으며 팀 유일의 3할 타자로 자존심을 세웠다.

나지완도 4번 타자라는 수직어가 여색하지 않는 활약을 해냈다.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타선의 자존심이 됐고 위기의 외야에서는 수비수로서의 역할도 해냈다.

KIA의 고민이었던 '안방 마님'도 신에 이종규와 백용환의 등장으로 풍성해졌다. 강한 어깨와 몸을 사리지 않는 패기로 눈도장을 찍으며 정제되어 있던 포수 자리에 새바람을 불어넣었다.

2014시즌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마운드에서는 마무리 고민을 우선 풀어야 한다. 마무리를 놓고 우왕좌왕하면서 마운드 전체가 무너졌다. 나지완이 군입대를 마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최희섭·김주형의 불확실함은 중심타선의 무게를 떨어뜨리고 있다. FA 시장에 나온 이용규와 윤석민의 거취도 변수다.

무엇보다 잃어버린 호랑이 본성을 깨우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의 남다른 '꿈의 무대' 무등야구장

특 & Talk

무등경기장이 지난 4일 넥센과의 경기를 끝으로 추억이 됐다.

이날 경기는 시즌 최종전이자 무등경기장의 고별전이었다. 3-8로 허무하게 끝났던 경기. 마지막 조명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고 경기장을 서성이던 선수가 있었다. 무등경기장 고별전의 선발투수 양현종이었다.

양현종에게는 잊지 못할 2013년 10월4일이다. 양현종에게 무등경기장은 프로선수의 꿈을 키우고 그 꿈이 이뤄진 '꿈의 무대'다.

동성중 2학년 때 처음 무등 마운드를 밟았던 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다. 큰 무대가 신기했던 중학생은 동성고를 거쳐 꿈에 그리던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었다. 눈물도 있었지만 무등경기장에는 타이거즈 선수라는 자부심·승리의 기쁨 그리고 사나이들의 우정이 더 진하게 남았다.

그리고 무등경기장이 32년간 계속된 타이거즈 안방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이날, 양현종은 무등시대의 마지막 선발투수가 됐다.

어린 시절의 꿈과 추억이 담겨있는 마운드로서 특별한 경기였다. 또 다른 작별이 기다리고 있었던 만큼 더 이기고 싶었던 경기이기도 했다.

든든한 선배였던 윤석민이 해외진출을 위한 도전을 앞두고 있고 언제나 묵묵히 자신

의 공을 받아줬던 또 다른 선배 불펜 포수 전경호가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승리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었다.

그러나 6이닝 2실점(1자책), 2-2로 맞선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승리를 쟁기지 못했다. 팀도 3-8로 패를 당하면서 아쉬움으로 고별전이 끝났다.

최종전까지 패배로 끝나지 선수들은 하나 둘 조용히 경기장을 떠났다. 떠나는 동료들을 뒤로하고 양현종은 덕아웃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덕아웃 이곳저곳을 살펴보면 양현종은 그라운드를 내다보며 한참을 서있었다.

팬들을 대상으로 무등경기장 개방 행사가 열리면서 오랫동안 경기장 불이 밝혀져 있었지만 불이 다 꺼질 때까지도 양현종의 눈은 그라운드로 향해 있었다.

"떠나질 못하겠다"면서 덕아웃을 서성이던 양현종은 "휴이라도 봐야겠다"며 마운드로 향해 무등경기장과 작별 인사를 했다.

2년의 부진 속에 더 단단해진 양현종은 올 시즌을 위해 누구보다 뜨거운 겨울을 보냈다. 그 결실은 전반기 다승 1위·평균자책점 1위로 보여졌지만 부상이 찾아오면서 예타는 여름을 보냈다. 풍성한 가을을 그리며 돌아온 마운드가 높게만 느껴졌던 후반기.

"내가 살고, 야구를 했던 곳에서 응원 받고 인정을 받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양현종의 아쉬운 작별이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